

2010년 9월호

뚝은 감 관측 결과(案)

2010. 8. 10(화)

재배동향 및 전망

■ 기상 양호, 병해충 피해 작년·평년 대비 비슷

-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없었으나, 올봄 이상저온으로부터 입은 냉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현상이 지속되어 일부 감나무에 낙과 피해가 있었다.
- 병해충 발생면적과 피해정도는 작년·평년 대비 비슷했고 대체적으로 6~7월부터 발생되었다. 주요 병해충으로 탄저병과 깍지벌레, 꼭지나방이 있었으며 특히 전남 영암에서 꼭지나방과 깍지벌레 피해가 많았다.

■ 병해충 피해

단위 : %

구 분	병해충 발생면적			병해충 피해정도		
	증가	비슷	감소	증가	비슷	감소
작년대비	28.3	57.1	14.5	26.5	58.9	14.5
평년대비	28.3	64.4	7.2	26.5	66.2	7.2

주 : 뚝은 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

■ 생육상황 작년·평년 대비 좋은 편

- 수정상태 작년·평년과 비슷하거나 좋아
금년 뚝은 감의 수정상태는 작년·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좋았다. 올봄 이상저온현상으로 냉해피해가 있었으나, 연중 강수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생육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었고 수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수정상황

단위 : %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작년대비	30.4	46.9	22.5
평년대비	50.6	41.7	7.6

주 : 뚝은 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

● 전국적으로 생육상황은 좋은 편, 지역별 편차 있어

전국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경북 청도, 경남 하동, 전남 영암은 작년·평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좋았으나 충북지역과 경북 상주 내 고도가 높은 지역은 금년 봄 동해피해가 커 그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뚝은 감 전반적 생육상황

단위 : %

구 분		전국	경남	경북	전남	충북
작년대비	좋음	61.7	62.5	72.2	52.9	45.9
	보통	20.5	37.5	15.6	47.0	13.5
	나쁨	17.7	0	12.0	0	40.5
평년대비	좋음	58.4	62.5	68.6	52.9	40.4
	보통	24.3	37.5	25.3	47.0	11.9
	나쁨	17.1	0	6.0	0	47.6

주 : 뚝은 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

■ 전체 결실량 평년대비 늘었으나 지역별로 편차 커

● 올봄 동해로 인한 피해정도가 균일하지 않았으므로 지역별로 착과량과 낙과량의 편차가 컸다. 충북 옥천, 충주, 영동지역은 올봄 동해를 비롯해 일부지역에 습해가 발생되어 작년·평년 대비 착과량도 적고 낙과량이 많았다. 또한 전남 영암은 올봄 냉해로 인해 불량과가 많이 발생되어 작황이 좋지 않았다.

● 한편 경북 청도는 착과량이 줄었으나 낙과량도 줄어 전반적인 작황은 좋

왔고, 상수도 작년 과다 착과로 인해 영양이 부족하여 착과량이 줄었으나 낙과량 또한 줄어서 피해가 크지 않았다.

■ 뚝은 감 착과 및 낙과

단위 : %

구 분			전국	경남	경북	전남	충북
작년대비	착과량	증가	12.6	10.0	13.5	5.0	0
		감소	16.8	12.5	15.8	10.5	25.8
	낙과량	증가	22.9	10.0	22.5	13.0	33.6
		감소	16.4	10.0	17.0	0	10.0
평년대비	착과량	증가	7.5	5.0	8.0	0	0
		감소	9.8	7.5	10.3	5.6	13.3
	낙과량	증가	13.0	6.6	13.0	7.5	16.8
		감소	9.5	5.0	10.0	0	5.0

주 : 뚝은 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

가격 동향 및 전망

■ 꽃감 상품 가격 작년대비 상승

- 7월 꽃감 상품 산지가격은 작년대비 12.7% 상승, 평년대비 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원인은 작년 겨울 동해로 인해 원료감 출하물량이 줄어 꽃감 저장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또한 수입산 꽃감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의한 수입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금년 설 이후 국내산 가격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9월 이후 꽃감가격 강보합세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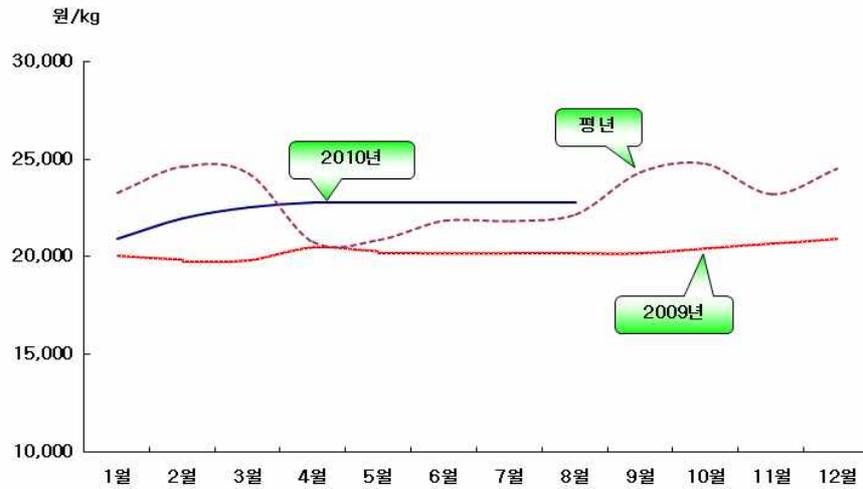
- 추석을 맞아 선물용·가정용 등 꽃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산 꽃감 재고도 부족하여 9월 이후에도 작년대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꽃감 생산지 월별 가격동향

단위 : 원/kg

연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 품	2010	20,940	21,962	22,508	22,750	22,750	22,750	22,750	-	-	-	-
	2009	20,024	19,830	19,830	20,455	20,262	20,190	20,190	20,190	20,198	20,440	20,657
	평년	23,271	24,608	24,287	20,748	20,836	21,833	21,810	22,182	24,314	24,742	23,203
중 품	2010	16,590	17,593	18,307	18,630	18,630	18,630	18,630	18,630	-	-	-
	2009	15,018	14,880	14,880	15,456	15,840	15,840	15,840	15,840	15,848	16,090	16,307
	평년	14,866	15,895	16,944	14,997	15,007	15,333	15,826	16,463	17,845	18,123	16,351

주 : 평년가격은 '05년 1월~'09년 12월의 월별 평균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이며, 산지가격은 논산, 영동, 장성의 평균가격을, 소비지 가격은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등의 평균가격이며, 8월 가격은 1일~5일까지 잠정치임.

자료 : 산림조합 중앙회



주 : 평년가격은 '05년 1월~'09년 12월의 월별 평균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이며, 산지가격은 논산, 영동, 장성의 평균가격을, 소비지 가격은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등의 평균가격을, 8월 가격은 1일~5일까지 잠정치임.

자료 : 산림조합 중앙회

수입 현황

■ 7월 꽃감 누계 수입량 작년대비 감소

- 올해 7월까지의 누적 수입량은 1,165톤, 금액은 2,197천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꽃감 수입량은 679톤으로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이후 꽃감 수입량 작년대비 감소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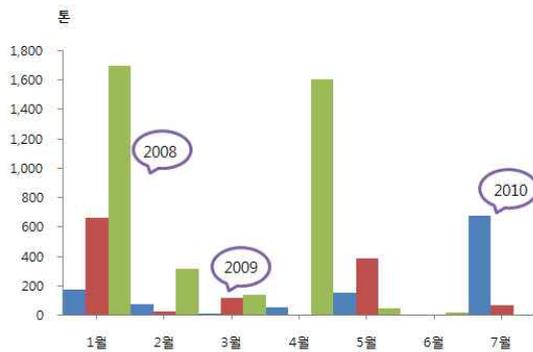
- 국내산 꽃감 가격은 9월 이후에도 작년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되나, 금년 중국 뚝은 감 작황이 좋지 않고 중국 내 인건비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수입산 꽃감의 가격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9월 이후 꽃감 수입량은 작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꽃감 월별 수입실적

단위 : 천USD,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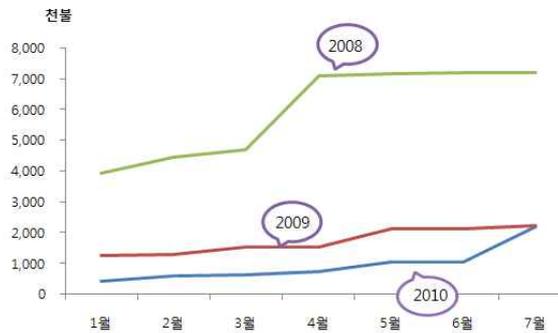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0	금액	449	186	18	113	286	-	1,145	-	-	-	-	2,197
	중량	178	78	11	60	157	-	679	-	-	-	-	1,165
2009	금액	1,266	52	218	21	588	-	93	145	350	309	37	3,976
	중량	667	28	120	10	391	-	71	84	211	177	24	2,166
2008	금액	3,931	523	230	2,416	78	38	-	39	-	0	38	8,147
	중량	1,691	316	143	1,601	46	19	-	23	-	0	22	4,291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월별 꽃감 수입량



꽃감 수입 누계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종합 전망

■ 생육상황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나 봄철 냉해로 인해 부진한 지역 있어, 병해충 피해는 양호한 편

- 올해 장마철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없었으며, 전반적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나 지역별 편차가 컸다.
- 병해충 발생면적과 피해정도는 작년·평년 대비 비슷했고 대체적으로 6~7월부터 발생되었다. 주요 병해충으로 탄저병과 각지벌레, 꼭지나방이 있었으며 특히 전남 영암에서 꼭지나방과 각지벌레 피해가 많았다.

■ 전체 결실량 평년대비 늘었으나 지역별로 편차 커

- 전국적으로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 냉해피해가 있었고 피해정도가

균일하지 않았으므로 지역별로 결실량의 편차가 컸다. 충북, 전남지역은 작황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북, 경남지역은 작황상태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좋았다.

■ 9월 이후 꾀감가격 강보합세

- 국내산 꾀감 재고가 부족하고 수입산 꾀감의 가격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추석을 맞아 꾀감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9월 이후 꾀감가격은 작년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 9월 이후 꾀감 수입량 작년대비 감소 전망

- 9월 이후 국내산 가격은 작년대비 상승할 전망이나 금년 중국의 뚝은 감 작황이 좋지 않고,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산 원가가 상승하여 9월 이후 꾀감 수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단신

탄저병

탄저병은 감 재배지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나무와 과실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병으로 일단 과수원에서 만연하게 되면 방제하는데 많은 노력이 든다. 이를 막기 위해 개별 농가는 발병한 가지를 접수로 사용하지 않고 묘목을 심을 때는 탄저병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수, 채광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질소질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전년도 감염된 가지에서 만들어진 분생포자가 전염원이 되므로 병반이 있는 가지는 수형에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거한다. 주로 비가 온 후에 감염이 일어나므로 5월 상순부터 7월 사이, 또 9~10월 사이 10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적용 약제를 살포한다.

자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http://gba.go.kr>

□ 기압계 전망

8월 중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음.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날이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기압골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으나, 전반적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9월 상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유지되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순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C, mm

		서울	강릉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제주
8월중순	최고기온	30.0	28.4	30.7	31.1	31.3	30.9	29.5	29.6
	최저기온	22.5	21.5	22.1	22.7	22.6	22.9	23.5	24.0
	강수량	109.2	76.7	93.1	62.4	73.3	91.5	58.7	91.8
8월하순	최고기온	28.3	26.8	28.8	29.5	29.5	29.4	28.6	28.7
	최저기온	20.9	19.9	20.6	21.3	21.2	21.5	22.4	23.0
	강수량	108.5	125.0	112.7	91.6	96.9	112.7	121.7	113.6
9월상순	최고기온	27.2	25.9	27.7	28.2	28.2	28.2	27.5	27.3
	최저기온	19.3	18.4	18.7	19.5	19.5	19.9	21.0	21.5
	강수량	71.5	72.4	52.6	47.4	57.9	61.9	73.6	67.2

주: 강수량은 평년값임(1971 ~ 2000년)